



백규하

변호사

TEL 02-6200-1937
FAX 02-6200-0811
E-MAIL khbaek@jipyong.com

백규하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는 인사 및 노동입니다. 백규하 변호사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을 전공하였으며,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LO) 등 해외기관에서의 노동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규하 변호사는 근로자성·징계·해고·수당 등 인사 및 노동과 관련한 여러 소송 및 노동위원회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파견 수당과 관련한 두 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백규하 변호사는 유창한 영어 및 해외 고객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에 대한 영문 자문을 꾸준히 제공합니다. 백규하 변호사는 해외 고객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내 노동법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높이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2008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2014	미국 Cornell University 노사관계학 졸업
201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5-현재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연수 중

경력

201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제네바, 스위스) 인턴
2011	Global Labor Institute (뉴욕, 미국) 썸머 펠로우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소송]

- 국내 대기업 H사(제조)를 대리하여 취업규칙 관련 소송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교육공무원 성과급 관련 소송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및 관련 소송 전부 승소
- 국내 대기업 N사(IT), J사(제조) 등을 대리하여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다수 승소
- 국내 대기업 W사(은행), H사(제조) 등을 대리하여 수당 청구 소송 다수 승소
- D사(부동산), H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해고) 항소심 승소(1심판결 파기)
- E사(유통), W사(의료기기), H사(제조), E 공공기관 등을 대리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 다수 승소
- B사, S사 등 택시회사들을 대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청구 사건 전부 승소(확정)
- S기관(금융), J기관(금융)을 대리하여 징계 가처분 사건 다수 승소(전부기각)
- J사(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전부기각)
- H사(금융)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무혐의)
- 서울대학교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대학총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 전부기각 승소
- 국내 대기업 L사(유통), K사(증권)[1심, 2심], 글로벌 기업 M사(항공) 등을 대리하여 민사소송 승소

[자문]

- E사(운송), I사(IT), J사(제조), A사(IT), P사(제조), S사(의료기기), M사(해운), K사(서비스) 등 다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근로자성 · 근로계약 · 임금 · 징계 · 해고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 전반 관련 영문 자문
- 글로벌 기업 N사(IT)에 대한 대한민국 노동법 관련 브리핑 수행, 노동조합 관련 영문 자문
- 글로벌 기업 S사(제조), G사(서비스), T사(서비스)에 대한 근로자 파견 · 파견근로자 채용 관련 영문 자문
- 글로벌 기업 H사에 대한 국내 철수 관련 영문 자문
- K사(IT), S사(제조), N사(IT), S사(식품) 등 다수 대기업, 은행, 항공사,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노동 및 기타 법률적 이슈 전반 자문
- 국내 대기업 K사(IT)에 대한 단체협약 관련 자문
- 국내 다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 파견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징계 · 해고 관련 자문

[컨설팅 및 내부조사]

- 국내 대기업 N사(IT)에 대한 불법파견 컨설팅
- 국내 대기업 S사(제조)에 대한 불법파견 컨설팅
- 국내 대기업 S사(금융)에 대한 ESG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 국내 대기업 N사(IT)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내부조사 및 후속 자문
- 글로벌 기업 A사(IT)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내부조사(영문 보고서) 및 후속 자문
- 글로벌 기업 D사(제조)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내부조사(영문 보고서) 및 후속 자문
- 글로벌 기업 M사(에너지)에 대한 비위행위 내부조사(영문 보고서)

[연구보고서]

- 남북경협 투자분쟁 해결절차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2025	Panoramic: Labour & Employment Disputes 2026 -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2025	Global Legal Insights: Employment & Labour Laws 2025, Global Legal Group
2021-2025	주요 노동판례 · 행정해석집(공저), (주)중앙경제
2020-2022	The Aviation Law Review (Co-Author), The Law Reviews
2020-2022	The Labour and Employment Disputes Review (Co-Author), The Law Reviews
2021	Getting the Deal Through- Labor & Employment 2021: Korea Chapter (Co-Author), Lexology
2020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공저), 법무법인(유) 지평

[칼럼]

2025	인턴에게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월간 노동법률 2025년 1월호
2024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월간 노동법률 2024년 9월호
2024	근로기준법상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의 최근 판례 동향, 월간 노동법률 2024년 5월호
2024	용역업체 변경 시 수 차례 고용이 승계됐으나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기대권을 부정한 사례, 월간 노동법률 2024년 1월호

[영문 인터뷰]

2024	Workplace Safety Law Expanded To Small Biz With More Than Five Workers As Of January 2, January 29, 2024. Arirang News: Within the Frame
2023	Interview On Sixty-Nine Working Hours Restriction, March 7, 2023, TBS eFM This Morning
2023	Occupational Fatalities Still Remain Unimproved Despite One Year Of 'Workplace Disaster Law,' January 7, 2023, Arirang News: Within the Frame
2023	Interview on Job Based Pay, January 6, 2023, TBS eFM This Morning
2022	Strikes Across Nations Amid High Inflation, November 23, 2022. Arirang News: Issues & Insiders
2022	Legislative Efforts to Eliminate Occupational Accidents, November 2, 2022, Arirang News: Issues & Insiders
2022	Interview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2), October 19, 2022, TBS eFM This Morning
2022	Interview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1), February 22, 2022, TBS eFM This Morning
2022	Interview on Vaccination Pass, January 7, 2022, TBS eFM This Morning
2021	Supreme Court's Decision on Bonuses as Ordinary Wage, December 17, 2021, TBS eFM This Morning

자격 취득

2019

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한국어 / 영어